

담양군, 전국 최초 '향촌변호사' 도입 4개월...법률 불안 해소 기여

대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로 주민 큰 호응

생활 전 분야 매주 월요일 총 11회 상담 진행

담양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위촉한 '향촌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해 12월부터 '향촌변호사(변호사 김혜인)'를 위촉해 군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까지 총 11회 상담(매주 월요일)을 진행했으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면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담양은 지역에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 지소가 없는 상태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법률서비스인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홈다터 등이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대면상담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해야만 했다.

이렇듯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환경에 놓여 있는 군민의 생활 속 고통을 덜기 위해 군은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변호사를 향촌변호사로 위촉, 대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향촌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군민들은 쉽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군민이 겪고 있는 법률 분쟁 예방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담은 담양군민이면 누구나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 전 분야에서 1:1 대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사전일정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충분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 3건만 상담을 진행한다.

김혜인 변호사는 "지난 4개월 동안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 제시 등 최선을 다해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내일부터 '화순 꽃강길 버스킹 본격 운영'

매주 주말 및 공휴일 '2024년 화순 버스킹 운영 예정'



화순군은 4월 6일부터 매주 주말(금·일) 및 공휴일에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대 앞 버스킹

을 본격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버스킹은 폭염과 폭우 시를 제외하고 매주 금,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음악분수 시작 50분 전인 7시 10분부터 45분 분량으로 운영된다.

오는 6일 19시 20분 첫 시작 버스킹은 전자현악 단체의 이색적인 선율, 뒤이어 20시 20분에는 통기타 어쿠스틱 밴드의 감미로운 음악, 7일 19시 20분에는 운치 있는 색소폰 연주로 주말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화순 버스킹 공모사업은' 수준 높은 버스킹 운영을 위해 공모 심사 중이며, 선정 결과는 4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이 버스킹에 지원하여 감사한 마음이며, 군민들께 수준 높은 버스킹을 선보이기 위해 난이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엄선 중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흙 살리기 다시마액비, 실증시험 탁월 효과

영양분 함량↑, 경도 5.7%↑, 수확량 10.6%↑



술센터의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에서 기능성 다시마액비를 관주 및 엽면시비한 처리구와 무처리구로 나누어 실증시험을 실시했다.

특히 물에 희석한 기능성 다시마액비를 작물체 옆에 직접 살포하는 엽면시비의 경우보다 점적 호스 등을 이용해 뿌리 부근의 땅에 직접 주입하는 관주의 경우가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시설채소의 경우 재배 기간 중 일반 액상 비료 또는 기능성 액비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시마액비는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다시마를 함유한 기능성 액비의 국내 유통량도 증가추세에 있다.

박근규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실증시험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 기능성 다시마액비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구례군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능성 다시마액비를 시설채소(오이, 애호박)에 적용한 실증시험을 추진한 결과 칼륨, 마그네슘, 망간 등 주요 영양분의 함량은 증가하고, 과육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는 5.7%, 수확량은 10.6% 향상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오이, 애호박 재배 농가 10호와 구례군농업기

"일당 마찰 해결" 나주시, 농촌 적정 인건비 11만원 제시

나주시가 올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로 11만원을 제시하고 일당 책정 시비거리 해소를 위해 농가와 근로자 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제시한 적정 인건비는 최근 열린 '2024년 나주시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단순 노무, 8시간 근무 기준'으

로 결정했다.

다만 노동 강도와 작업 난이도에 따라 농가와 근로자 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무엇보다 농촌인력의 평년 임금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나주시의 설명이다.

적정 임금 책정 과정에선 지역 내 외국인 불

법체류자의 불성실 근로 부작용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나주시는 올봄 농번기에 농촌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32명을 확보함으로써 일손 부족 해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송준표 기자

장성군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장성군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은 산지가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임업인

(-in) 통합포털'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다.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산림편백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림팀에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이용해도 된다.

장성=김수권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 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